

지방

서울특별시

市花 : 개나리 市鳥 : 까치
 市木 : 은행나무 심벌 : 해치
 시청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장 : 박원순(朴元淳)



개관

연혁 한강 유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출토된 점으로 볼 때 구석기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때는 신석기시대로 추정되며 강동구 암사동이 대표적인 유적지다. 강남구·강동구·송파구 등에서 청동기시대 집터가 발굴되고 한강 유역에서는 당시 널리 사용되던 민무늬 토기인 가락동식 토기가 출토됐다. 특히 계급사회를 나타내는 고인돌 무덤이 한강 유역에서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당시의 정치적 집단이 백제 건국의 기반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삼국시대 때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 통일신라 때는 9주 중 하나인 한산주로 불렸다. 고려시대에 양주→남경(1067년)→한양부(1308년)로 개편됐다가 조선시대 태조 3년(1394년)에 수도를 송악(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명칭도 한양부에서 한성부로 바뀌었다. 이후 500여 년 동안 한성부로 불리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경성부로 개칭됐고 1945년 광복과 함께 현재의 명칭인 서울로 변경됐다. 1946년에 서울특별사

서울특별시 면적·가구·인구

(2017년 12월 31일 현재)

| 구분 | 면적(km ²) | 가구(세대) | 인구(명) |
|------|----------------------|-----------|------------|
| 합 계 | 605.22 | 4,220,082 | 10,124,579 |
| 종로구 | 23.91 | 73,594 | 164,257 |
| 중구 | 9.96 | 60,412 | 134,593 |
| 용산구 | 21.87 | 107,666 | 244,444 |
| 성동구 | 16.85 | 132,902 | 312,711 |
| 광진구 | 17.06 | 160,798 | 372,298 |
| 동대문구 | 14.21 | 159,938 | 366,011 |
| 충량구 | 18.50 | 179,132 | 412,780 |
| 성북구 | 24.57 | 187,112 | 455,407 |
| 강북구 | 23.60 | 142,533 | 328,002 |
| 도봉구 | 20.70 | 137,378 | 346,234 |
| 노원구 | 35.44 | 217,619 | 558,075 |
| 은평구 | 29.69 | 202,839 | 491,202 |
| 서대문구 | 17.60 | 137,266 | 325,028 |
| 마포구 | 23.84 | 169,408 | 385,783 |
| 양천구 | 17.41 | 176,649 | 475,018 |
| 강서구 | 41.43 | 254,257 | 608,255 |
| 구로구 | 20.12 | 171,570 | 441,559 |
| 금천구 | 13.00 | 106,066 | 253,491 |
| 영등포구 | 24.57 | 167,355 | 402,024 |
| 동작구 | 16.35 | 172,995 | 408,493 |
| 관악구 | 29.57 | 255,352 | 520,929 |
| 서초구 | 47.00 | 173,594 | 445,401 |
| 강남구 | 39.51 | 231,612 | 561,052 |
| 송파구 | 33.88 | 264,628 | 671,173 |
| 강동구 | 24.58 | 177,407 | 440,359 |

(단위 : 백만원)

유시로 승격됐고, 1962년 내무부 관할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변경됐다.

1975년 강남구, 1977년 강서구, 1979년 은평구·강동구, 1980년 구로구·동작구, 1988년 양천구·서초구·송파구·중랑구·노원구, 1995년 광진구·강북구·금천구가 신설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은 총 25개 구로 늘어났고 2017년 현재 1천2만5천여 명이 사는 명실상부한 거대도시가 됐다.

면적·행정구역 동쪽은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 서쪽은 경기도 고양시·김포시·부천시, 남쪽은 경기도 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 북쪽은 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에 접해 있다. 총면적은 605.22km²로 남한 전체 면적의 0.61%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2017년 12월 현재 25개 구, 424개 동이다.

인구·가구 2017년 12월 말 기준 총인구는 1천2만4천579명으로 내국인이 985만7천426명, 외국인은 26만7천153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총인구가 7만9천478명(△0.9%) 감소했다. 가구 수는 422만822가구로 2016년 대비 3만243가구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4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5만7천857명, 여자는 516만6천722명으로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는 96명이다.

지역별 인구를 보면 강남지역 11개 자치구의 인구가 522만7천754명(51.63%)으로 강북지역 14개 자치구의 인구 489만6천825명(48.37%)보다 33만929명 많다.

재정

개요 2018년도 예산총액은 31조8천141억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1천678억원(△0.5%) 감소했다. 예산총액 중 일반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8년 본예산 | 2017년 본예산 | 증 감 | 증감률(%) |
|----------|--------------|--------------|------------|--------|
| 합 계 | 31,814,065 | 31,981,854 | △167,788 | △0.5% |
| 지방세수입 | 17,096,474 | 15,555,376 | 1,541,098 | 9.9% |
| 세외수입 | 3,849,324 | 3,435,964 | 413,359 | 12.0% |
| 경상적 세외수입 | 2,697,080 | 2,396,583 | 300,497 | 12.5% |
| 임시적 세외수입 | 1,152,243 | 1,039,381 | 112,862 | 10.9% |
| 지방교부세 | 143,441 | 153,814 | △10,373 | △6.7% |
| 보조금 | 4,827,814 | 4,467,903 | 359,911 | 8.1% |
| 국고보조금 등 | 4,827,814 | 4,467,903 | 359,911 | 8.1% |
| 시·도보조금 등 | - | - | - | - |
| 지방채 | 853,719 | 1,189,616 | △335,897 | △28.2% |
| 보전수입 등 | 5,043,291 | 7,179,178 | △2,135,887 | △29.8% |
| 내부거래 | - | - | - | - |
| 보전수입 등 | 595,109 | 2,821,984 | △2,226,874 | △78.9% |
| 내부거래 | 4,448,182 | 4,357,194 | 90,987 | 2.1% |

| 구분 | 2017년 본예산 | 2016년 본예산 | 증 감 | 증감률(%) |
|---------|--------------|--------------|----------|---------|
| 합 계 | 31,814,065 | 31,981,854 | △167,788 | △0.52% |
| 일반 공공행정 | 5,382,616 | 5,857,969 | △475,353 | △8.11% |
| 공공질서·안전 | 1,055,406 | 974,796 | 80,609 | 8.27% |
| 교육 | 3,254,720 | 3,673,262 | △418,541 | △11.39% |
| 문화·관광 | 746,321 | 730,728 | 15,593 | 2.13% |
| 환경보호 | 2,144,130 | 1,944,139 | 199,990 | 10.29% |
| 사회복지 | 10,118,243 | 9,659,691 | 458,552 | 4.75% |
| 보건 | 452,760 | 425,228 | 27,531 | 6.47% |
| 농림해양수산 | 25,108 | 28,571 | △3,391 | △11.87% |
| 산업·중소기업 | 227,344 | 258,060 | △30,716 | △11.90% |
| 수송·교통 | 4,330,199 | 4,526,965 | △196,766 | △4.35% |
| 국토·지역개발 | 2,092,591 | 2,031,788 | 60,803 | 2.99% |
| 과학기술 | 4,783 | 2,220 | 2,563 | 115.45% |
| 예비비 | 199,848 | 182,923 | 16,925 | 9.25% |
| 기타 | 1,779,918 | 1,685,508 | 94,409 | 5.60% |

회계는 22조4천665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0.5%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9조3천476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0.7% 감소했다.

분야별 자원 배분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5조3천826억원(△8.11%), 공공질서·안전 1조554억원(8.27%), 교육 3조2천547억원(△11.39%), 문화·관광 7천463억원(2.13%), 환경보호 2조1천441억원(10.29%), 사회복지 10조1천182억원(4.75%), 보건 4천528억원(6.47%), 농림해양수산 252억원(△11.87%), 산업·중소기업 2천273억원(△11.90%), 수송·교통 4조3천302억원(△4.35%), 국토·지역개발 2조926억원(2.99%), 과학기술 48억원(115.45%), 예비비 1천998억원(9.25%), 기타 1조7천799억원(5.60%)이다.

중점 추진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1천 곳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2015년 163곳, 2016년 302곳, 2017년에는 272곳을 늘렸다. 88곳의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으며, 이들의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기자재비용으로 최대 2억원,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개선비용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했다. 2017년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9%다.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7월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천1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정원 외 인력으로 있던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식으로 201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 중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13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로,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24시간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만 대로 늘렸다. 2015년 9월 첫 선을 보인 따릉이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주거단지 등 1천68곳으로 확대됐다. 7월부터는 본인 인증,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누구나 온라인 결제만 마치면 바로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2017 공유정책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따릉이 만족도는 91.1%에 달했다.

서울로 7017 개장 45년간 자동차 길로 이용되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꽃과 나무 가득한 공중정원으로 단장한 '서울로 7017'이 5월 20일 개장했다. 폭 10.3m, 길이 1천24m 도로를 시민·관광객을 위한 보행길로 바꿨다. 사용하지 않는 철길에 꽃과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만든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를 벤치마킹했다. 50과 228종 2만4천여 그루의 꽃과 나무를 이름 순서대로 심었다.

다림쥐 버스 도입 출근 시간 시내 혼잡구간만 오가는 '다림쥐버스'가 6월 26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광흥창역~국회의사당(8761번), 구산중~녹번역(8771번), 봉천역~노랑진역(8551번), 마천사거리~잠실역(8331번) 등 4개 구간에서 평일 오전 7~9시 시범 운행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일대에 2023년까지 잠실야구장 30개가 들어가는 규모(42만5천㎡)의 거대 지하도시를 만들겠다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을 6월 29일 발표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에 철도노선 7개가 지나가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며 지하 6층, 16만㎡로 국내 지하공간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본격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공급 목표는 2019년까지 5만 호로 2017년 말 현재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16곳(공공임대 1천534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4곳(1천157호)이다.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7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5천 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사회활동 참여비로 매일 50만원을 지원했다. 7~8월 분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을 중단했다.

한국인 위안부 영상 최초 발굴 7월 5일 서울대 인권센터와 함께 1944년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중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영상이 공개된 적은 있으나 한국인 위안부는 처음이었다. 공개된 영상은 중국 운남

성 송산(松山)에 포로로 잡혀있던 위안부 7명을 촬영한 18초짜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필름 수백 통을 일일이 뒤진 끝에 찾았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연구 관련 예산을 끊거나 삭감하자 서울시는 서울대 연구팀에 예산을 지원해 위안부 사료 발굴 사업을 해 왔다.

덕수궁 돌담길 회복 주한 영국대사관으로 인해 60년간 끊겼던 덕수궁 돌담길 170m 중 100m 구간이 8월 30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개방 구간은 영국대사관 후문부터 대사관 직원 숙소 앞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영국대사관이 1959년 서울시 소유의 땅을 점유해 철대문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이 드나들 수 없게 됐던 곳이다. 나머지 70m(대사관 정문~직원 숙소)는 1883년 4월 영국이 매입한 땅이라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개통 9월 2일 서울 시내를 오가는 첫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됐다. 강북구 북한산우이역을 출발해 1·2호선 환승역인 동대문구 신설동역까지 11.4km를 약 23분에 주행하는 노선이다. 2009년 9월 첫 삽을 뜬 이래 약 8년간 8천882억원이 투입된 수직형 민자투자사업(BTO)이다.

세운상가 리모델링 개장 세운상가가 50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9월 19일 공식 개장했다.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된 세운~대림상가 사이 공중보행교를 12년 만에 부활시키고, 8층 옥상에는 방문객을 위한 전망대와 쉼터, 옥상 텃밭을 만들었다. 쇠락한 전자기기 상가에서 청년들이 모여드는 제조업 창업·벤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스타트업 입주공간인 '세운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만들었다. 3층 높이 보행로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 98곳을 철거하고 만든 공간에는 스타트업 17개사가 입주했다.

초미세먼지 '나뽀' 때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정책 시행 11월 20일부터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도 '나뽀'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등을 대상으로 했다. 무료요금은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됐다.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 발표 서울 내 3가구 중 1가구에 가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계획을 11월 발표했다.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니 태양광 설치 가구를 지금의 3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30배 이상 늘리고 신축 임대아파트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2018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도입 12월 31일 서울 도심 세 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에 이르는 종로 2.8km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했다. 9월 15일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완공했다. 이에 따라 망우·왕산로에서 도심을 거쳐 경인·마포로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게 됐다. 전용차로 설치 구간에는 정류소 15개가 설치됐다. 이 중 13개는 이동형으로 거리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정류소를 도로가로 옮겨 관람석으로 쓸 수 있다.

산업

상업 2016년 12월 말 기준 대형마트 62개소, 백화점 32개소, 전문점 22개소, 쇼핀센터 35개소, 복합쇼핑몰 10개소, 기타 309개소 등 총 470개의 대규모 점포가 있다. 전통시장은 종류구 21개, 중구 35개, 영등포구 23개 등 총 306개가 있다.

제조업 2016년 기준 제조업 사업체 수는 6만1천40개로 27만9천103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사업체 수는 1천777개, 종사자 수는 8천311명 감소했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2015년 기준 17조5천55억3천만원으로 2014년 17조3천977억2천만원에 비해 1천78억원 증가했다.

사회

주택 2016년 말 기준 주택 수는 등록센서스(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를 기준으로 2015년 363만3천 호에 비해 1만1천 호가 늘어난 총 364만4천호다. 2016년 주택보급률은 2015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96.3%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115만9천 호(31.8%), 아파트 164만1천 호(45.0%), 연립주택 11만6천 호(3.2%), 다세대주택 69만9천 호(19.2%), 기타 2만9천 호(0.8%)다.

교통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대중교통 66%(버스 27%, 지하철·철도 39%), 택시 6.8%, 승용차 23%, 기타 4.4%로 집계됐다. 2017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1만6천 대로, 그중 자가용 승용차는 264만1천 대다. 2016년 기준 시내버스는 351개 노선에 총 7천421대가 운행하고 있다.

관광 2016년 기준 관광사업체 수는 호텔 348개소, 여행업 7천432개소 등 모두 9천933개소다. 이 중 관광호텔은 특급 70개소, 1~3급 호텔 129개소, 가족호텔 14개소, 호스텔 50개소 등으로 나뉘며 전체 4만6천947개의 객실이 있다. 기타 관광사업체로는 도시민박업 892개소, 유원시설업 112개소 등이 있다.

환경 1990년 연평균 0.051ppm이던 아황산가스(SO₂) 농도가 친환경 연료 공급정책 등의 효과로 2017년엔 0.005ppm으로 떨어져 환경기준(0.02ppm)을 만족시켰다. 일산화탄소(CO) 농도도 1990년 2.6ppm에서 2017년 0.5ppm으로 떨어졌다. 미세먼지(PM-10)는 2012년 41 μ g/m³에서 2013년 45 μ g/m³, 2014년 46 μ g/m³, 2015년 46 μ g/m³, 2016년 48 μ g/m³로 증가했다가 2017년 44 μ g/m³로 소폭 줄었다. 초미세먼지(PM-2.5)는 2014년 24 μ g/m³에서 2015년 23 μ g/m³로 감소했다가 2016년 26 μ g/m³로 늘었으나 2017년 다시 25 μ g/m³로 소폭 감소했다. 오존(O₃)농도는 2015년 0.022ppm에서 2016년 0.024ppm, 2017년 0.025ppm으로 증가했다. 이산화질소(NO₂) 농도는 2017년 0.030ppm으로 2016년 0.031ppm보다 소폭 낮아졌다.

폐기물 처리 2016년 말 기준 1일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천608t으로 그중 6천549t(68%)은 재활용, 2천292t(24%)

은 소각, 766t(8%)은 매립되고 있다.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4kg이다. 2017년 말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환경미화원은 3천58명으로 차량 1천772대, 중장비 23대를 보유하고 있다.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2천411명이며 차량 1천115대, 중장비 57대가 있다. 강남·노원·마포·양천 4곳의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2006년 33%에서 2017년 82%로 높아져 연간 72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열 149만Gcal를 회수하고 3천900만kW의 전력을 생산했다.

공원·녹지 공원녹지는 남산공원을 비롯해 모두 2천827개소 167.94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 605.22km²의 27.75%다. 2017년 기준 서울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16.48m²로 2016년 16.31m²보다 소폭 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14만9천615km²며, 도심 녹지대는 총 6천938개소 1만4천670km²다.

자연생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한강방성, 둔촌동, 방이동, 단천, 진관동, 암사동, 고덕동, 청계산원터굴, 한인릉, 남산, 불암산삼육대, 창덕궁후원, 봉산, 인왕산, 성내천하류, 관악산, 백사실계곡 등 모두 17개소 4.82km²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우면산(두꺼비 서식지), 수락산(고란초 자생지), 진관(양서·파총류 서식지), 난지한강공원(양서, 파총류 서식지), 종량천상류(표범장지뱀 서식지) 보호구역과 종량천하류, 청계천하류,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등 총 8개소 1.48km²다.

보건·후생 2017년 말 기준 의료기관은 총 1만7천142곳이며, 총 병상 수는 8만6천800개이다. 종합병원이 57곳, 병원 214곳, 의원 8천276곳, 요양병원 108곳, 정신병원 7곳, 결핵병원 1곳, 치과병·의원 4천850곳, 한방병·의원 3천669곳, 조산원 3곳이 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2만111곳으로 약국이 4천916곳, 한약국 154곳, 의약품도매업소 789곳, 한약도매업소 180곳, 한약업사 60곳, 약업사 1곳, 의료기기판매업소 1만3천408곳, 의료기기수리업소 598곳 등이 있다.

교육·문화

교육 2017년 기준 유치원 880개소(공립 209곳, 사립 671곳), 초등학교 603개교(국공립 564곳, 사립 39곳), 중학교 384개교(국공립 275곳, 사립 109곳), 고등학교 320개교(국공립 120곳, 사립 200곳), 특수학교 29개교(공립 11곳, 사립 18곳), 전문대학 9개교, 대학교 38개교(국공립 4곳, 사립 34곳), 대학원 401개교, 기타 41개교 등 총 2천705개 교육기관이 있다.

문화재 2017년 12월 말 현재 1천772점이 있으며,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1천206점, 시 지정문화재가 566점이다. 2016년에 비해 국가 지정문화재 12점과 등록문화재 10점, 시 지정문화재 27점 총 49점이 증가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국보 164점을 비롯해 보물 685점, 사적 및 명승 70점, 국가민속문화재 41점, 천연기념물 12점, 국가무형문화재 39점, 등록문화재 195점이 있다. 시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383점, 기념물 39점, 무형문화재 48점, 민속문화재 33점, 문화재자료 62점이 지정돼 있다.

문화시설 2017년 12월 말 기준 박물관 123곳, 공연장 397곳, 미술관 42곳, 공공도서관 180곳 등 총 742개의 문화시설이 있

다. 대표적인 문화시설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남산골 한옥마을, 북촌한옥마을, 운현궁, 문화비축기지 등이 있다.

문화행사 종묘대제(5월),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9월) 등의 전통문화 행사가 있으며, 한강몽땅 여름축제(8월), 서울세계꽃축제(9월), 서울거리예술축제(10월), 서울빛초롱축제(11월) 등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축제가 있다.

2017년 10월 5~8일 열린 '서울거리예술축제2017'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에서 온 47개 팀이 145회에 걸쳐 거리예술 공연을 펼쳤다. 서울광장·세종대로와 서울로 7017에서 해외공연작품 16개, 국내 공연작품 31개, 시민 참여형 공연, 1천여 명이 참여하는 폐막 시민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서울빛초롱축제에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주제로 한 조형 작품이 청계천에 전시됐다. 이외에도 서울문화의 밤, 서울김장문화제,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등의 축제가 있다.

자치구별 주요 축제로는 여의도 봄꽃축제(영등포, 4월), 한성백제문화제(송파, 9월), 종로 한복축제(종로, 10월), 강동선사문화축제(강동, 10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마포, 10월), 신촌맥주축제(서대문, 10월), 이태원 지구촌축제(용산, 10월) 등이 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 장〉 양준욱

〈부의장〉 조규영, 김진수

〈의석분포〉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26명, 국민의당 8명, 바른정당 1명이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13명, 행정자치위원회 10명, 기획경제위원회 11명, 환경수자원위원회 11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명, 보건복지위원회 11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2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3명, 교통위원회 13명, 교육위원회 13명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의안처리 조례안 396건, 예산 및 결산안 12건, 동의·승인안 115건, 건의안 16건, 결의안 30건, 의견청취 22건, 청원 15건, 기타 43건 등 총 6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총 3천86건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건의문, 결의문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2017년 4월 28일) 등 총 16건의 건의안과 30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타 의정활동 2017년 한 해 정례회 2회(제274회, 제277회), 임시회 4회(제272~273회, 제275~276회) 등 총 6회 110일간(정례 2회 26일, 임시 2회 42일)의 회기를 운영했고, 3회 8일에 걸친 일본일당 형식의 시정 질문에서는 총 39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시정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

市花 : 동백꽃 市鳥 : 갈매기

市木 : 동백나무 캐릭터 : 부비(BUM)

시청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시장 : 서병수(徐秉洙)



개관

연혁 부산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때는 해운대 좌동·중동·청사포에서 후기 구석기 유적이, 영도 동삼동에서 조개무지 등 신석기 유적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약 2만 년 전부터 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역의 신석기·청동기 문화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철기시대에는 철을 중심으로 하는 수공업이 발달했다.

삼한시대 동래지역에는 거칠산군·장산군 등의 부족국가 있었다. 이후 신라가 이 지역을 병합하면서 거칠산군을 두고 지금의 당강동 일대에 대증현을 설치했다.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개칭했는데, 이는 중국식 지명을 따른 것으로 '동래'라는 명칭의 유래가 됐다. 이후 대증현을 동평현으로 고쳐 동래군의 영현으로, 갑화랑곡현을 기장현으로 고쳐 동래군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시대 성종 14년(995년) 전국을 2경(京) 4도호부(都護府) 10도(道)로 나뉘었을 때 동래군은 영동도(嶺東道)에 속했다. 현종 9년(1018년)에는 동래현으로 격하돼 기장현과 함께 울주(蔚州)의 속현, 동평현은 양주(梁州)의 속현이 됐다.

조선시대 초기에 부산진이 설치됐고, 태종 7년(1407년) 부산포를 개항해 항거 왜인들에게 왜관 내에서의 무역을 허락했다. 이후 동래도호부 승격 등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고, 국방정책 강화로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됐다.

1876년 2월 부산항이 근대 국제 무역항으로 개항했고, 1895년에는 동래관찰부로 승격됐다. 1900년 초부터 바다 매축과 시가지 조성, 항만 축조가 이뤄졌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됐다.

1914년 4월 부제(府制) 실시에 따라 동래부와 부산부로 재편됐다. 1925년 4월 도청이 부산으로 옮겨오면서 도청 소재지가 됐다. 1936년에 1차, 1942년에 2차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적이 확장됐다.

1949년 8월 府에서 市로 개칭됐다. 한국전쟁 때는 임시수도로서 모든 국가기능을 담당했으며, 1957년 1월 구제(區制, 6개 구)가 실시됐다. 1963년 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됐다.

1975년 10월 남구, 1978년 2월 북구, 1980년 4월 해운대구, 1983년 12월 사하구, 1988년 1월 금정구가 신설됐다. 1989년 1월 김해군 가락면·녹산면과 창원군 천가면 등이 편입돼 강서구가 신설됐다.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개칭됐고, 경남 양산군 5개 읍면이 기장군에, 진해시 웅동2동